

발톱 세운 호랑이 “5위 내놔” 독수리 등지 쳐들어 간다

김빠진 5위 싸움에 다시 불이 붙는다. 청주가 결전의 무대다.

5강 라이벌 KIA와 한화의 떠먹힌 한 주였다. 후반기 불꽃 질주로 5위까지 치고 올랐던 KIA는 5연패로 지난 한 주를 마감했다. 5강 라이벌의 뒷걸음질이 계속됐지만 한화도 2승3패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6위 KIA와 승차 없는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6위 KIA와 5위 한화가 1·2일 청주구장에서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김빠졌던 5강 전경이 재개된다. 무던 창과 악해진 방패의 싸움이다.

팀 타율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는 KIA는 지난주에도 0.212의 팀타율을 기록하면서 답답한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 29일 넥센을 상대로 모처럼 장단 11안타를 몰아치면서 7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이 경기를 뺀 5경기의 평균 득점이 2점이었다. 25일 13개의 삼진을 기록한 타자들은 이어진 3경기에서도 내리 10K를 상대 마운드에 한납하는 등 6경기에서 51차례 삼진으로 허무하게 돌아섰다.

타지 않는 방망이에 어렵게 5위 싸움을 이끌었던 투수진의 어깨가 더 무거

KIA, 5위 한화와 진검승부

꼴찌 추락 팀 타율 관전

부상 복귀 선수들에 기대

위졌다. 노련함으로 불펜을 지키던 최영필과 김광수의 페이스가 떨어졌고, 예반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선발진도 흔들리고 있다.

양현종이 경기 도중 공에 손목 부위를 맞아 가슴을 쓸어내렸고 스티븐스의 예리함도 떨어졌다. 지난주 유일하게 승리투수가 됐던 임준혁은 지난 30일 등판에서는 자신의 최고 투구수(106개)를 경신했지만 5.20인 7피안타 1볼넷 3탈삼진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면서 팀의 5연패를 막지 못했다. 시즌 내내 이어진 타선의 침체로 마운드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와 달리 묵직하고 날카로워진

타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한화는 마운드 조합이 맞지 않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5위 싸움에 올린 하느라 불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믿을 수 없었던 불펜이 가장 큰 고민이 되고 말았다.

무던 창으로 위기의 방패를 뚫어야 하는 ‘호랑이 군단’.

분위기 반전을 위한 변화의 카드가 준비됐다. 9월1일 확대 엔트리에 맞춰 새 전력이 짜였다.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김주찬이 한화와의 5위 전쟁의 전면에 서게 된 가운데 2군에서 칼을 갈았던 김주형·최용규(이상 내야수), 오준혁(외야수), 김병현·임기준(이상 투수), 이상우(포수)도 5위 싸움에 힘을 보태게 됐다.

5연패에서 만나게 된 5강 라이벌과의 경기는 KIA의 가을을 좌우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한편 KIA는 청주 빅매치 이후 안방으로 돌아와 3·4일 롯데를 상대한 뒤 5·6일에는 대구로 건너가 1위 삼성을 상대로 ‘가을 잔치’ 티켓 확보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 공이야! NFL(프로미식축구) 오클랜드 라이더스의 캔버렐 탐킨스(왼쪽)가 지난 31일 미국 오클랜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경기에서 타이런 매튜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5년 연속 600만 관중 돌파

한국프로야구가 5년 연속 600만 관중을 넘어섰다.

지난 30일 KIA와 넥센의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필드에 8800명이 찾은 등 전국 5개 구장에 총 6만4118명이 입장하면서 2015프로야구 누적 관중이 601만6876명(평균 관중 1만285명)을 기록했다.

618만명의 관중을 기록했던 2011년 이

후 5년 연속 600만 관중 돌파다.

메르스 영향으로 6월 평균 관중수가 전월대비 4000명 이상 감소하기도 했지만, 7월 회복세를 보인 뒤 8월 평균 관중이 1만 명을 넘어섰다.

KIA는 올 시즌 56경기에서 58만2233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면서 평균 관중 1만 2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만366명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치다.

전체 일정의 약 81.31%인 585경기를 치른 KBO리그는 남은 경기에서 2012년(715만6157명)이후 역대 두 번째 700만 관중 돌파와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경신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왼쪽)이 지난 31일 영국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EPL 4라운드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를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교체 출전...스완지, 맨유에 짜릿한 역전승

기성용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다.

스완지시티는 지난 31일 영국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EPL 4라운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스완지시티는 2승2무를 기록하며 시즌 개막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맨유는 2승1무1패로 첫 패배를 당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초반 맨유에 불 점

유율을 빼앗겼지만, 전반 후반 이후부터 활기를 찾으며 맨유를 밀어붙였다. 전반 26분 길피 시구르드손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겨갔고, 1분 뒤에는 바페티비고 미스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선제골은 맨유의 몫이었다. 전반 0-0으로 마친 스완지는 후반 3분 만에 맨유에 골을 허용했다. 웨인 루니가 내준 볼을 쇄도하던 후반 마타가 선제골을 넣었다.

스완지는 후반 11분 기성용을 투입했

고, 기성용이 들어간 지 4분여만에 안드레 아예우가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꽂아 넣었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스완지는 후반 20분에는 아예우의 패스를 받은 고미스가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스완지는 동점골 만회를 위해 반격에 나선 맨유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강팀 맨유를 상대로 귀중한 승점 3을 획득했다. 시즌 개막전에서 다친 기성용은 2·3라운드에 결장했지만, 지난 26일 리그컵 경기에서 나섰으며 이날도 후반 교체로 나와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 34경기 연속 출루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6경기 안타를 치고 후반기 선발로 출전한 전 경기에서 출루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3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올렸다.

텍사스는 선발 투수 데릭 홀랜드의 눈부신 역투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6-0으로 이기고 4연승의 신바람을 냈다.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깨끗한 안타를 날려 텍사스의 기선 제압에 중심 노릇을 했다. 1회 무사 1루에 나온 추신수는 볼티모어 우완 선발 투수 미겔 곤살레스의 초구를 잡아당겨 우익수 팻벌출처를 뺏아가는 안타를 날렸다.

워낙 잘 맞은 탓에 직선타인 줄 착각한 1루 주자가 2루에서 아웃됐다면 추신수의

타구는 기록상 우익수 앞 ‘땅볼’에 그칠 뻔했지만, 발 빠른 주자 델리노 드실즈가 안타임을 확인한 뒤 전력 질주해 슬라이딩으로 2루에서 살면서 안타가 됐다.

추신수는 이 안타로 후반기에 선발로 출전한 34경기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 이래 21경기 연속 출루도 달성했다.

프린스 필드가 안타로 무사 만루 기회를 연결했고, 에드ريان 벨트레가 우익수 쪽 희생플라이를 날려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벨트레의 희생플라이 때 3루에 간 추신수는 후속 미치 모어랜드의 타석 때 폭투가 나오자 바로 홈으로 쇄도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원바운드로 튄 공의 행방을 상대팀 포수 패트 위더스가 놓친 사이 재빠르게 홈을 뛰고 들어 시즌 64번째 득점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한국, 대만 꺾고 4연승

한국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4연승을 질주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31일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구장에서 열린 제27회 대회 B조 예선 4차전에서 아시아의 난적 대만을 4-3으로 따돌렸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17-2, 5회 콜드게임 승으로 제압하고 캐나다를 6-2, 쿠바를 4-3으로 꺾은 한국은 이로써 예선 4전 전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프로야구 kt 위즈가 1차 지명한 좌완 에이스 박세진을 내세웠다. 대만은 좌타자 5명을 선발로 내 맞볼을 놔지만 박세진은 5이닝 1피안타 7탈삼진 1실점으로 대만 타선을 제압했다. 그 사이 타선은 1회초 안상현의 1타점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고 3회초 임석진의 2타점 좌전 2루타와 주효상의 적시타로 3점을 뽑아 4-0으로 앞서며 박세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축구 여섯번째 전국 제패

추계 1·2학년 대학축구 우승

호남대가 KBSN 제12회 추계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여섯 번째 전국 제패에 성공했다.

호남대는 지난 31일 강원도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울산대를 상대로 3-2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반전 두 골을 내준 호남대가 후반 30분 안승운의 골을 시작으로 추격에 나섰다. 8분 뒤 홍승우의 패스를 받은 안승운이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연장 후반 1분 유인영의 기습적인 중거리슈팅이 울산대 골문을 뚫으면서 짜릿한 역전극이 완성됐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호남대에게는 우승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윤경보가 최우수선수, 홍승우가 득점상을 차지하면서 각각 트로피와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수비상에는 조요섭, 골키퍼상



호남대 선수들이 지난 31일 강원도 양구종합운동장에서 끝난 KBSN 제12회 추계 1·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에서 울산대를 3-2로 꺾고 우승을 확정짓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은 김재인, 동상에는 김정민이 선정됐다. 우승을 지휘한 성한수 감독과 김강선 코치는 최우수지도자로 선정돼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호남대는 전문 골키퍼가 없는 치명적인 핸디캡에도 고도의 집중력과 선수들의 응

집력, 정신력 등을 바탕으로 우승컵을 거머쥔 대학축구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날 경기에는 박기인 호남대 이사장과 박상철 부총장을 비롯한 각 단대 교수 및 재학생 등 350여명이 찾아 응원 열기를 더했다. /채희중기자 chae@